

한국 여자 탁구, 단체전 銅 '쾌거'

2024 파리올림픽

16년 만에 메달 획득

신유빈, 32년 만에

단일대회 '멀티 메달'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메달을 품에 안았다.

신유빈(20·대한항공), 전지희(32·미래에셋증권), 이은혜(29·대한항공)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지난 10일(한국 시각)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4단식복식)에서 독일을 매치 점수 3-0으로 꺾었다.

여자 단체전 세계랭킹 3위인 한국은 5위 독일을 상대로 하나의 매치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따냈다.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혼합복식 동메달을 일군데 이어 단체전 동메달까지 목에 건 신유빈은 한국 탁구 선수로는 32년 만에 단일 대회 멀티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4번째다.

신유빈 이전에 올림픽 단일 대회에서 2개 이상의 메달을 목에 건 한국 탁구 선수는 1988년 서울 대회 유남규(남자 단식 금메달·남자 복식 동메달), 김택수(남자 단식 동메달·남자 복식 동메달), 현정화(여자 단식 동메달·여자 복식 동메달) 뿐이었다.

한국 여자 탁구가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단체전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08년에 이어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탁구의 역대 4번째 올림픽 단체전 메달이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2008년 동메달, 2012년 런던 대회 은메달을 따냈다.

복식으로 치러진 첫 매치에서 여자 복식 세계랭킹 2위 신유빈-전지희 조는 복식 랭킹이 없는 왕위안-산샤오나 조를 게임 스코어 3-2(11-6 11-8 8-11 10-12 11-8)로 이겼다.

상대의 매서운 추격을 받았지만, 결국 승리를 따냈다. 먼저 두 게임을 가져왔던 신유빈-전지희는 이후 두 게임을 내주며 따라잡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1경기에서 신유빈-전지희 조가 독일 산샤오나-왕위안 조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혔고, 5게임에서도 초반에 4-7로 끌려갔다.

그러나 한국은 전지희의 스매싱과 신유빈의 백핸드, 전지희의 톱스핀으로 7-7 동점을 만들었다. 산샤오나의 범실이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한 한국은 전지희의 공격과 상대 범실로 11점을 채워 첫 매치를 가져왔다.

한국은 2단식에 나선 단식 세계랭킹 44위 이은혜가 100위 아네트 카우프만을 게임 스코어 3-0(11-8 11-9 11-2)으로 완파했다.

랭킹이 낮기는 하지만,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은 한의의 자리를 메운 카우프만은 경계대상이었다.

이은혜는 1게임에서 6-1까지 앞섰다가 9-8로 쫓겼지만, 연속 득점으로 1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까지 가져온 이은혜는 3게임에서 일방적인 공세를 펼쳐 셋아웃 승리를 일궜다.

'말안나' 전지희(단식 세계 15위)는 3단식에서 40위 산샤오나를 게임 스코어 3-0(11-6 11-6 11-6)으로 제압했다.

1게임에서 3-3으로 맞서다가 연달아 2점을 따내 리드를 잡은 전지희는 8-4로 점수차를 벌린 뒤 가볍게 게임을 따냈다.

전지희는 2게임에서 3-0으로 앞서가다 5-3으로 쫓겼지만, 이후 내리 두 점을 따 7-3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0-4에서 연달아 2점을 쫓던 전지희는 상대 범실을 유도하면서 2게임마저 이겼다.

3게임 초반 1-3으로 끌려가던 전지희는 긴 랠리 끝에 상대 백핸드 범실을 유도해 득점에 성공, 분위기를 바꿨다.

3-3에서 내리 두 점을 따 역전한 전지희는 5-4에서 내리 4점을 올리면서 상대를 몰아붙였다. 9-6으로 조금 쫓겼지만, 타인아웃을 부른 뒤 점수를 따내 매치 포인트를 잡았다.

이어 랠리 중 산샤오나의 포핸드가 테이블 밖으로 벗어나면서 한국의 승리가 확정됐다.

신유빈과 전지희, 이은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메달 획득의 기쁨을 나눴다. /뉴시스

'임금체불 논란' 사격연맹 회장 사임

"포상금 3억원 지급 예정... 3000여만원 취임식 비용은 입금"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임금체불 논란 속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격연맹관계자는 지난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신명주 회장이 오늘 사퇴서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회장으로 선출된 후 지난 달 초 취임식을 가졌던 신 회장은 취임식 한 달여 만에 사임하게 됐다.

신 회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의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곧바로 연맹 측에 사임 의사를 드러냈고, 이날 사직서를 전달했다.

취임식과 파리 올림픽 출장 비용, 출연금으로 약속한 3억원은 신 회장이 책임질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도 이에 대해서는 신 회장에 책임져 줄 것을 요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3,000만원 정도의 취임식 비용은 오늘 입금"이라며 "올

림픽 출장 비용은 아직 정산을 더 해야 한다. 정산 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 숙박, 가이드 인건비 등의 올림픽 출장 비용은 5,000만원 선으로 추산된다.

출연금 3억원은 사격인의 밥이 열리는 12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는 선수들의 포상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연맹은 사격인의 밥에서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코치진에 3억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격연맹은 지난 2002년부터 회장을 지냈던 한화 그룹이 지난해 11월 물러난 뒤 7개월 간의 수장 공백을 겪었다. 그러다 신 회장이 자리에 올랐지만, 다시 새 회장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뉴시스

김제시청 태권도팀,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 출전

김제시(시장 정성주) 태권도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5,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신청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김제시청 태권도팀은 지난 1998년에 창단돼 각종 태권도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해 왔으며,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천병열 태권도팀 감독은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항상 김제시청 태권도팀을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유독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격銀' 김예지, 실신 후 회복

파리올림픽 10m 공기권총 은메달을 목에 걸은 김예지 선수(임실군청)가 지난 9일 기자회견 중 쓰러졌다.

김 선수는 이날 오전 11시11분께 전북 임실군 종합사격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갑자기 경련과 함께 쓰러졌다가 10분여만에 회복했다.

김 선수가 쓰러진 이유는 긴장감과 누적된 피로도가 주요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극적 파리행' 전북 女 레슬링 간판 이한빛

"올림픽 출전만으로 감사... 패배는 아쉬워"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 놓친 것 같아 아쉬워"

극적으로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지만, 첫 경기 결과는 패배였다.

"올림픽 무대에 선 것이 감사하다"면서도 이한빛(30·완주군청)의 얼굴에서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다.

이한빛은 9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레슬링 여자 자유형 62kg급 16강전에서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랭킹 6위 루이스 니메슈(독일)에 0-3으로 졌다.

세계 6위 니메슈를 상대로 잘 버티고도 패배한 이한빛은 경기 후 "무척 아쉬운 경기였다. 너무 자신 없게 경기한 스스로가 후회스럽다"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고,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자신없이 경기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뒤늦게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며 "태클에 자신있는 데 시도하지 못했고, 기회가 있었는데 재다가 살리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이한빛의 파리행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이한빛이 지난 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샹드마르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레슬링 여자 자유형 62kg급 16강전에서 독일 루이스 니메슈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아시아 쿼터 대회 준결승에서 패배, 각 체급에 2장씩 걸린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해당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북한의 문현경과 몽골의 푸레우도르징 어르헝이 출전권을 확보했다.

아시아 쿼터 대회에서 출전권을 놓친 이한빛은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파리 올림픽 세계 쿼터 대회에 나서려 했지만, 몸 상태가 악화해 출전을 포기했다.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이한빛은 지난달 열린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

항 대회에 출전했다.

그런데 대회를 마친 직후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현경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이한빛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지난 5일야라 파리에 왔다.

이한빛은 "원래 대회 전에 하던 루틴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국내 대회를 마친 직후 넘어오는 바람에 몸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며 "그래도 마음이 급하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마음 편히 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믿고 경기했다"고 전했다.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이한빛은 지난달 열린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

/뉴시스



홍순무·홍용표父子 2인展

2024. 7. 17. Wed - 8. 13. Tue

Opening. 7. 20. Sat P.M. 3:00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Tel. 063-284-0888, 매일 10:00-18:00, 월요일 휴관